

詩誌

종 소 리

제 106호

2026 년 4 월 봄호

시지

종소리

106 호



2026 년 봄호

(105 호)

차 례

천리향	리 유 실 (4)
《그대》가 아닌 《너》	서 정 인 (6)
안녕 여기는 2026	강 명 숙 (9)
《잘 다녀와》	허 옥 녀 (12)
새싹 틔 시	김 명 혜 (14)

자 누 오 사 누 르 / 자 케 바 허 가 르 께 가 흥 누

정성	조 소 화 (16)
《망원경》	리 일 렬 (18)
아들아	양 금 녀 (20)
약속	김 애 미 (24)

삶	채 덕 호 (26)
페이지를 번지며	류 혜 령 (28)
이제서야 깨닫는다	오 지 유 (30)
《선생님》이라 불러주는 너희들이 있어	배 가 나 (32)
후회	허 옥 녀 (34)

자 누 오 사 누 르 / 자 키 보 서 가 르 께 가 흥 누

아버지 생신날에	진 승 원 (36)
눈편지	리 방 세 (39)
굽은 손	리 유 실 (40)
부서놓고 고쳐준다고	김 윤 호 (42)
후기	(44)

천리향

리 유 실

조그맣고 새하얀
꽃잎들이 모여앉아
무더기로 피는 서향꽃

좋은 꽃향기가
천리까지 간다고
지어진 별명이 천리향

어릴적에 할아버지가
사랑하신 꽃나무

오늘은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꽃나무

어느 시대에도
어느 곳에서도

어김없이

변함없이

향그러운 봄소식

전해주는 천리향

바다너머 퍼지는

초연냄새마저도

네 맑은 향기는

없앨길 없으니

더 멀리 날려라

더 오래 풍겨라

평화와 기쁨의 추억

온 세상 가득채워라

《그대》가 아닌 《너》

서 정 인

열여덟살에 만난 너와 나
너는 나를 반겼으나
내가 네게 정붙일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했었다

어린 티를 제대로 못 벗어던지던
내게 조언을 주어도
《나는 안다》면서
귀등으로 흘려보냈고

규칙을 따라 정해진대로 사는게
젊음의 삶은 아닌것 같아
네 눈길을 피해가면서
더 편한 방법을 찾기도 했었지

지내보면서는
네 하는 말들에
술깃이 귀를 귀울이게 되어

눈은 좀 트이는것 같기도 하였거니

네 진정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니
《조선》이 《조국》이 되고
《동무》는 《동지》가 되어
내 가는 길은 가야 할 길로 되었다

철들어가던 그날로부터 반세기
한순간도 나를 버리지를 앓고
끝까지 이끌어주고 가르쳐준 너
고마워라

《70년의 자부심》이라면서
오늘도 푸른 나래를 펴는
네가 우연히라 해도
동갑이란게 자랑스럽다

어깨동무하며
너와 함께 ※무사시노즐기에 새길

마지막 한돌이,
내 너를 위함이라면 아까울것 없으리니

-조선대학교창립 70 돛의 날에-

※ 무사시노~(武蔵野). 도쿄또(東京都)의 다마(多摩)지구 및
23 구(区)의 일부, 사이따마현(埼玉県)의 일부
의 지역을 포함한 지역명

안녕 여기는 2026

강 명 속

대학들이 변하고있다
이름값 겨루던 시대는 물건너가고
저마다의 특색을 내세워야 살 시대
하다면 우리 대학의 장점은 무엇

기적의 력사가 흐르는 대학!
이역의 가시덤불 헤쳐가며
길 없는 길을 개척한 해와 달들
오늘은 조부모님, 부모님 뒤를 이어
그렇게 나도 조선대학교에 왔다고
4 세, 5 세들 가슴펴고 자부하는 곳

보호자되어 다시 모여든 오늘같은 날엔
《이게 누구야!?!》
단 한마디에 솟구치는 반가움
다 지난 세월도 잊어버리고
찬란한 청춘 되찾군 하지

대학을 못 간 어떤이의 어릴적 아쉬움도
《동창회명예회원》 특별한 부름으로
뜨겁게 녹여주는 우리 대학은
동포들 삶에 소중히 자리잡은
둘도 없는 청춘대학!
만사람이 잇닿은 모교!

재학기간은 한계가 있어도
여기서 배우는 시간은 한생이니
변하는 세상속 오히려 변함없이
사람을 키우기 위해 다 바치는
그것이 우리 학교, 참다운 《인간대학》!
때문에 모든걸 집약축소하는 이 시대에
더 크고 포근한 《집》 짓고있잖아

안녕 여기는 2026
조선대학교의 창립 70 돌이야
어려운 고비마다 잊지 말자
기적같은 세월에 만족을 모르고
밝고 맑은 참인간

오래가는 사람 키우는 곳
천년만년 이어갈 우리 대학의 가치를

《잘 다녀와》

허 옥 녀

아침마다 7시 45분이 되면
할아버지는 계단을 내려간다
커피를 마시다가도
텔레비뉴스를 보시다가도

자전거 타고 학교 가는 손녀가
집앞을 지나는 7시 50분
어김없이 할아버지는 손녀를 바랜다
《잘 다녀와》

학교통합으로 통학길이 멀어져
남들은 자전거 몰고 학교 다녀도
겁난다고 혼자 시뻐스로 다닌 손녀
애가 탄 날 어찌 한두번이었으랴

그런데 그런데
6학년생이 되면
자전거로 학교 다니겠단 약속 지켜

오늘도 썩썩 자전거를 모는 막내손녀

비가 와도 걱정

바람이 불어도 걱정

마음놓일 날 드물어도

남의 나라 땅에서도

조선사람 키워주는 우리 학교가 있어

얼마나 다행이라 얼마나 복된 일이라

졸업의 날이 다가오는데

할아버지는 오늘아침도 집앞에 서서

막내를 배웅한다

순식간에 자전거는 사라지지만

손녀의 가슴에도 할아버지 가슴에도

오가는 정 깊어만 가는구나

《잘 다녀와》, 《다녀오겠습니다》

새싹 틔 시

김 명 혜

한해 맺음의 문학부날
오래 빈 자리가 메워지고
여느때처럼 주고받는 합평소리
맹원들의 마음도 훈훈해져 웃음 활짝

여러번 의견받아 다듬었어도
좀처럼 완성에 이르지 못해
서로 의견이 오고갈 때
자리에 나오신 고문님께서 하신 말

나직한 소리로 천천히
말문을 떼기 시작하셨네
삼시에 시의 종자를 바로잡아
다듬어갈 새 방향을 제시해주시네

들으면 들을수록 납득
여전히 대담하게 수정해야 하지만
맹원들은 그 합평에 끌려들어

어느새 눈빛은 반짝

새로운 발견에 그저 감탄
시세계에로 나래를 펼친다
따뜻한 서정과 기발한 창작방향에
야! 하고 환성을 올리네

시는 《씨》라고
《씨》를 발견해야
새맛이 난다 하신
그 말에 머리꽂이 콧

시가 빛이 난다
한편의 시에 새싹이 움튼다
봄빛마냥 창작의욕이 백배
그래서 시가 좋구나

정 성

조 소 화

학생들과 함께

학교 옥상에 해바라기를 심었습니다

- 3 일후면 꽃이 피겠지요?

- (... ? !)

학생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해바라기를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네 교사는

옥상에 가려면 한층을 내려가

신발을 들고 다시 3 층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학생들은 물주기당번을 서로 떠맡았습니다

며칠후 리과시간에 보니

아니나다를가 해바라기는

이제 곧 쓰러질듯 간신히 서있었더랍니다

학생들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매일매일 빠짐없이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정성을 다하게 되었답니다

3 일이 아닌 3 개월이 지나
해바라기는 곱게 피었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보다 더 밝게
학생들 얼굴에 웃음이 활짝 피었습니다

-나도 무럭무럭 크고싶어요
제 키의 두배나 되는 해바라기를 바라보며
그들은 말했답니다

나는 되새겼습니다
바쁘다고, 힘들다고, 귀찮다고
학생들을 외면하고 피한다면
그들을 꽃피우지 못한다는것을

나는 민족교육의 화원을 가꾸는
원예사가 되어야 할 사람
어린 학생들을 자래우는 밀거름이 되어
해살처럼 정성을 쏟아부을것입니다

(도쿄조선제 9 초급학교 교원)

《망원경》

리 일 렬

-창호지에 또 구멍을 뚫었구나
(에이, 이놈!)

엄마의 꾸지람에 태양은 깜짝
고개를 숙이면서 우물쭈물하다가
작은 소리로 투덜투덜 말대꾸

-구멍에서 전차나 비행기가 보여요
그래서...
이건 망원경이에요

갑작스러운 변명에
엄마는 말문이 막혀 어안이 병병
저도 모르게 웃었네

그래그래, 작은 동그라미는
너만의 《망원경》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호기심과 꿈

더 크게 더 멀리로 펼쳐가거라

-어디, 엄마도 보여줄래

*창호지 ~ 「障子紙」

아들아

양금녀

-엄마, 보세요

세탁물이 춤춰요

-그래, 사랑사랑 바람이

친구해주는구나

-엄마, 저기 봐요

하늘이 참 예뻐요

해님이 잠잘 차비 하나봐요

-그래, 저녁노을이 참 곱구나

-엄마, 해님이

씨앗처럼 산속에 묻혀가요

해님아, 안녕히!

래일도 개인 날 피워줘요!

-애야, 봐라

수평선에 해가 지누나

—엄마, 해님은요
바다물속에 빠져들어가나요?

—엄마, 해님이 갔더니
달님이 왔어요
달님은요, 왜 날 따라오나요?
달님이 나 보라고 떠있나요?

—엄마, 오늘은
하늘이 정전인가봐요
별들도 다 잠자나요?
—그래, 아들이
별들은 구름이불 덮고 잠잔단다

—엄마, 오늘은
하늘이 잠잠한 바다같아요
—애야, 래일은 비가 온대
—하늘아, 제발 울지 마

-엄마, 아침은 왜 꼭꼭
내가 자는 동안에 오나요?
새날이 어떻게 밝아오는지
나 알고싶어요

-어제 꾀 꿈 또 꾸고싶어요
엄마가 꼭 안아준 꿈
-아들아, 언제든 이 엄마가
널 꼭 안아주마

-엄마팔은 왜 길어요?
나 안아주려고 그래요?
-그래, 귀여운 아들아
어서 이리 와

...

아들아
다 큰 아들아
엄마가 새겨둔

어린 날의 네 말들은
그대로 온전한 서정시였단다

이제 곧
엄마 품 떠나가는 아들이
나에게 시를 줘서 고맙구나
이 엄마한테 와줘서 고맙구나

너랑 나는
보석같은 추억들이
엄마가슴 꼭 채우며
반짝반짝 쏟아져흐르누나

약 속

김애미

-우린 꼭 다시 보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떠난 모교

오랜만에 찾아온 학교는
새로 지어지고
동무들은 어른스러워
모든것이 빛나보이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여기서
일본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하기학교》며
아이키우기씨클사업을 돕느라고
《어린이 마당》

마음 개인 날도 흐린 날에도
학교를 찾아오면 보는 얼굴
우연일가 필연일가

졸업하여 몇년이 지나도
뜻을 함께 하는 우리라면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은 필요없구나

삼

채 덕 호

조선대학교를 졸업하여
중앙기관에 배치되었다고
우리 점방을 찾아온 지성

름름한 그 모습은
젊은 나이에 세상 떠난
학재선배모습 그대로였다

학생시기 유술부에서 함께 훈련한 선배
곰같은 몸매로 어찌나 강했는지
허나 웃으면 둘레까지 환하게 해주는 성미

조청활동에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지키는 사업에 앞장선 선배

조대를 졸업한 후
전임일군으로서 동포들속에 들어가
헌신적으로 사업한 선배

지부소호트빨시합에서
서로 호탕하게 웃으며 즐기던 모습
지금도 생생하네

사람들은 흔히
부모의 등을 보며 자란다고 하지만
그 등이란 부모의 삶이다

선배 등은 많이는 못 보았어도
선배가 걸던 삶은
아들에게 맥맥히 이어졌으니 ...

몸조심히 잘 갔다오라고
서로 악수를 나눈 순간
내 눈앞에서
학재선배가 활짝 웃었다

폐지를 번지며

류 혜 령

졸업을 눈앞에 두고 시작된
학급의 《교환일기》
내 차례가 되어
먼저 적은 폐지를 번져봅니다

… 나를 우리 학교로 보내주신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도 고마웠다고
손길 내밀어준 민족교육이 고마웠다고
이제서야 알게 되었답니다

언제 어디서나 따뜻한 미소로
학생들의 어떤 물음에도 대답을 주신
우리 학교 선생님모습 떠오른답니다

반가울 때도 안 그럴 때도 늘 곁에서
나를 깨우쳐주고 도와준
동무들과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건지 되새겨본답니다

모든것 다 안겨주고
조선사람된 기쁨과 보람
진정한 행복 알게 해준
어머니조국에서의 꿈같은 나날 돌이켜본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적어봅니다
민족교육의 화원에서
마음껏 배운 우리가
다음은 그 화원 지키고 가꿔갈 차례

나를 보살펴주고 키워준 가지가지 사랑과
그 사랑 몰랐던 송구스러움이 밀려오는 속
《교환일기》 페이지를 번져가며
보답해갈 래일을 다짐합니다
힘찬 첫걸음 내디디렵니다

(2026년 3월 조선대학교 졸업생)

이제서야 깨닫는다

오 지 유

인생의 새 시작을 떼게 될 때에
조국의 지도원선생님 거듭 말씀하시던
《존엄, 존엄이 중요해!》
이 말이 자꾸 떠오른다

그때는 잘 몰랐으나
말의 참뜻은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을 살라》는것

조국에 가니
길가에 차별의 목소리는 없고
치마저고리 입었다고 눈치볼 일도 없었다
자기나라여서 응당한 일인데도
혼자 속으로
이렇게 개방되어도 좋겠는가고 느껴질 정도였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간다는것
바로 그것이 존엄이라고 알게 되었다
언제나 떳떳이
어디서나 당당히

조선사람으로 태어난 내 삶은
절대 부끄러운것이 아니라
나날이 빛날수 있는 삶이라는것을
이제서야 깨닫는다

(2026 년 3 월 조선대학교 졸업생)

《선생님》이라 불러주는 너희들이 있어

배 가 나

칠판앞에서 백묵을 쥔 손보다
너희들이 들여다보는 내 속마음은 더 떨렸다
잘 가르치고싶었고
훌륭한 어른처럼 보이고싶었지

《교원처럼》에 지나지 않는
어색하고 미숙한 교육실습생을
너희들은 언제 어디서나
《선생님》이라 불러주었지

실습기간에도 내내
교단에 서야 할 이유가 무언지
과연 나에게 그러한 자격이 있을가고
수없이 스스로 되물어보았지

조직이 요구하는 교원이 되여보려는
커만가는 사명감이

나를 교단에 서게 만들었지만

교단에서 보는 너희들 눈길들이
오히려 나를 《선생님》으로 자라게 했구나
다시 교단에 서고픈 리유를 찾게 했지

《선생님》이라 불러주는 너희들이 있어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는 이 시각
나를 기다리는 곳으로 기꺼이 달려가리니

서투어도 진정을 바칠줄 아는 《선생》 되어
너희들의 부름에 보답하련다
사명감이 아닌 나의 의지로
후대들을 몇몇한 조선사람으로 키우련다

(2026년 3월 조선대학교 졸업생)

후 회

허 옥 녀

류학동공연 《앞으로》의 여운이
채 가셔지기도 전에 우연히 만났네
승강기안에서 그리운 소꿉동무를

《가끔 신보에서 보았는데...》
놀란 기색으로 말 건네준 소꿉동무
하지만 난 그를 뚫어지게 바라볼뿐
한마디도 돌리지 못했네

열두살이었지 그를 처음 본것은
다니는 학교는 서로 달랐지만
련합단모임에서 자주 본 동무

어찌나 룡담을 잘했는지
어른이 되면 너를 마누라로 삼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장난꾸러기 친구

몇년전이였을가
중앙대회에서 우연히 본 소꿉동무
한평생 일군으로 사업하는 그가
은근히 자랑스럽기도 했지

첫 만남으로부터 지나간 예순다섯해
세월은 흐르고 흘렀건만
마음구석에 남았던 달콤새콤한 추억

왜 한마디를 못했을가
잘 있느냐고 안부조차 묻지 못했을가
날이 갈수록 커져가는 후회...

아버지 생신날에

진 승 원

《생신 축하드립니다》

일흔여덟 아들이
서른일곱 아버지의
사진을 모시고
인사 드린다

자그마한 상에는
즐기셨다는 참치회랑
간소한 안주들
축하주도 따라드린다

다 자란 아들과
술잔을 나누는 자리
좋아하실가봐
나도 소원이었다고

우리 공부 시켜달라
말씀 남기셨습니까?
애들 우리 공부 가르친다고
한집한집 찾으셨습니까?

여쭙고싶은 말이 얼마가
결혼 못하면 죽어버리겠다
어머니께 들은 청혼이
참인가도

-드십시오
-너도 들거라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밤

뜻을 이어사는
나의 삶을 아실가
아니면 벌써부터
나의 삶을 아셨을가

웃으시는 얼굴 그리며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술잔을 들어올리고
꿀꺽 들이킨다

뵈올 때까지
그리 살겠다고

-2026 년 1 월 20 일에-

눈편지

리 방 세

글자도 쓰지 않고
우표도 붙이지 않고
흰 봉투에
한줌의 눈을 넣어
누나에게 보낸다는
당신의 《편지》
하늘이
바람이
별이
가만히 들여다본다
나는 상상한다
꽃보라 끼워
봄바람 타고서
답변이 날아온다는것을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숨결
녹지 않는 그리움
따뜻한 눈편지

-윤동주의 시를 읽고-

굽은 손

리 유 실

검버섯이 생기고
쭈글쭈글해진 손

근육이 늘어져
굽은채 안 펴지는 손

저고리장사 꿈꾸며
양재를 배운 손

삼남일녀 기저귀를
매일 손빨래한 손

조선대학교 식당에서
취사를 맡은 손

조일우호친선이라
김치를 담근 손

손자 용돈 보태느라
내직을 하던 손

소중한 사람들 위해
늘 쉽없이 일한 손

제 얼굴 화장마저
천천히 한적이 없는 손

이제는 제 힘으로
펴지 못한 굽은 손

오늘은 내가
쓰담쓰담해줄게요

할머니의 굽은 손
세상에서 제일 고운 손

《종소리》 제 15 호중에서

부셔놓고 고쳐준다고

김 윤 호

한 사나이를 잡는다고
온 나라에 폭탄을 던져
다 부셔놓았다

수풀과 논밭
사람 사는
거리와 마을까지도

그 망동에
고개를 꼬덕이며
꼬리를 흔드는 줄개가 있다

다 부셔 초토로 만든 오늘
다름아닌 그들이
다시 고쳐주겠다고 한다

줄개는 또다시
고개를 끄덕이고
꼬리를 흔든다

잡으려던 사나이는 잡지도 못하고
대량과괴물도
찾지 못하고

나라에 불을 붙인 그 탓에
억울하게 혼이 된 죄 없는 백성들
가족을 빼앗겨 피눈물 흘린이 그 얼마

땅에 묻힌 그들을 누가 찾아주고
마르지 않는 그 눈물은
누가 닦아줄런지

(2003년 여름호)

106 호 후기

《우리 대학》, 《나의 대학》이 70 번째 생일을 맞이하였다. 106 호의 필자들중 많은 사람이 그 정겹고 뜨거운 품에 떠받들리워 자기 삶을 누려가고있음을 확인케 하고, 또 방금 만사람의 배움을 받으며 뿔뿔이 사회에 진출했을 3 명의 필자들도 《중소리》에 그리운 목련꽃향기를 실어보내주었으니 한결 마음 느긋해지는 이 봄이다.

새겨온 자욱과 나이는 서로 달랐어도 그들마음속 공통된것은 정든 대학이 새겨갈 길우에 나도 있다는 바로 그것일것이다. 생일 70 뚝을 맞으며 온 세상이 다 듣게, 금지높이 자랑하자. (한)

=====

詩誌 中 소 리

発行 《중소리》詩人会
代表・編集 徐正人 校正 韓誠宇
e-mail sousakukadai@yahoo. co. jp
発行日 2026年4月10日 (日本・東京)

2026 년뭇을 독자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시지 《중소리》는 101 호이후 보시는것처럼 이렇게 web 발행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중소리》를 사랑해 주시고 시지의 지속적인 발행을 위하여 연간 1,000 엔의 캄과모금에 찬동하여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널리 리해하시여 협력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송금해주실 口座는 아래와 같습니다.

ゆうちょ銀行 (記号) (番号)

10080 20334451 ソ チャンギョ

※ ゆうちょ銀行이 아닌 다른 金融機關을 통하여 송금해주실 경우 아래의 내용을 指定해주시오

【店名】〇〇八 (読み ゼロゼロハチ) 【店番】008

【預金種目】普通預金 【口座番号】2033445

106호